

해외 언어 · 문화연수 후기

연수구분	2024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해외 언어·문화연수
연수기관	York University (Canada)
연수기간	8/6~8/20 (2.5주)
연수자	경영학과, 이유리

연수후기

York university를 선택하게 된 이유

- 나는 서양권 국가에 방문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가서 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어서 최대한 대중교통으로 이동가능한 곳을 고르는 것이 우선이었다. 가서 길 잃으면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통이 잘 되어있는 토론토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캐나다는 나라가 영어와 프랑스어를 같이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York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다.

토론토 교통과 분위기

- 토론토의 Main station은 Union station이다. Union 역을 기점으로 Subway, Via rail (철도), UP Express(공항철도 같은 지하철) 등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 가능하다. 피어슨 공항에서 UP Express를 타고 Union 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면 York University까지 갈 수 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학교에서 공항 픽업 서비스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너무 비싸서 이용하지 못했다. 토론토는 지하철 외에도 버스랑 트램이 있어서 웬만하면 어디든 갈 수 있다.
- 그리고 토론토 사람들은 친절하 사람들이 많다. 횡단보도 건널 때도 사람이 우선이라서 차가 먼저 멈춰주고, 문 열 때도 대부분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 길을 여쭙보거나 말을 걸어도 호의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해준다.

York 대학교의 상점 및 기숙사

- York 대학교는 규모가 정말 크다. 학교 안에 병원, 약국, 프렌차이즈 식당, 마트 등 필요한 건 대부분 살 수 있다. 기숙사는 1인실이었고, 침대, 책상, 서랍장, 옷장을 구성되어있다. 나는 남녀 공동으로 사용하는 층의 방을 배정받았다. 그래서 남자랑 여자가 화장실이랑 샤워실을 모두 같이 쓴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적응이 안됐지만, 살다보면 점차 적응이 된다. 그리고 기숙사 안에 공용 주방이 있는데 전자레인지, 싱크대, 냉장고, 냅킨, 식탁 외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기 포트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Dollarama(한국의 다이소 같은 곳)에서 그릇 사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된다. York 대학교는 기숙사가 많아서 매년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께 미리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수업 방식, 그 외 관광 프로그램

- 방학 언어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들이 총 85명 정도였는데, 82명이 일본인, 한국인 2명, 베트남인 1명이었다. 가자마자 반을 나누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한다. 반별로 15명 내외로 있었다. 오전 수업(8:30~11:30)에는 레벨테스트대로 나눈 반으로 수업을 하고 오후(13:00~14:30)에는 Culture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한다. 오전 수업에서는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별로 선생님이 수업해주신다. 주입식 보다는 서로 소통하거나 파트너와 함께 하는 활동들이 많고 발음연습, Paraphraing, Vlog 만들기, 영상 듣고 요약하기, 토론 등의 활동을 했다. 그리고 2일에 1번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Downtown 구경, BlueJays(baseball team) game, Niagara Falls, CN Tower, Art gallery of Ontario, Wonderland, Toronto Island를 갔다. 스쿨 버스로 해당 관광지에 데려다주고 자유롭게 노는 형태였다. 관광지를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체력적으로 좋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소감

- 한국에서는 말하기보다는 문법과 읽기 위주의 영어를 가르치는데 일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영어 교육을 받는지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각자 알고 있는 문법이나 어휘에 비해 Speaking 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수업을 받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튜터들이 York 대학교 학생들인데,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모르는 것은 그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었다. 그 친구들도 같은 나이 또래라서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더 쉬운 말들로 바꿔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다. 학교 뿐만 아니라 토론토 맛집이나 갈만한 곳도 소개해줬다. York 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나 일의 분담이 잘 되어있어서 문제없이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고, 영어 스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은 토론토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한테는 가장 인상깊었다.
-

연수사진

